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 1독서 : 집회 3, 2-6. 12-14

제 2독서 : 골로 3, 12-21

복 음 : 마태 2, 13-15. 19-23

순정이

“요셉은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마태 2, 22-23).

강론

소리

“가정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세 모”

조정오 신부/용머리 천주교회

아기 예수의 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동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나는 어렸을 적 송아지가 태어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갓 태어난 송아지의 발톱을 만져주시면 그 작고 앙증맞기까지 한 송아지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뛰어다니며 먹이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보살핌을 받아야만 비로소 생존이 가능하고 제 구실을 하는 존재입니다. 밤은커녕 조금 된 죽도 소화할 못 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 숨가라질하기까지도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합니다. 스스로 걷기는 커녕 몸을 가누며 서기까지도 긴 세월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요즘은 100년은 걸려야만 분해된다는 1회용 기저귀로 너무도 쉽게 아기를 키우지만 옛적 우리의 엄마들은 한 아기를 키워내기 위해 2,350여장의 기저귀를 빨아야만 했답니다. 이렇게 부모의 보살핌 속에 성장했던 만 머리가 조금만 굶어지면 인간들은 스스로 오늘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교만해 하고 부모의 은공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입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가정의 임무를 다했던 요셉이나 겸손하게 한 가정의 주부요 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마리아의 삶을 배우며 오늘의 우리 가정과 비교해봅시다. 아들로서의 예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봉독된 마태오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2장은 어린아이 예수로 끝나고 3장은 30세가 된 성년 예수로 시작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는 나자렛에서 한 아들로서의 삶에 충실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조용하지만 선하게 인격이 형성되는 훌륭한 가정 교육을 받았으며, 목수직을 가지고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실하며 때가 오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의 몫을 다하며 하느님께 향해진 가정일 때 완전한 성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난 동안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시간이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물결이 스쳐간 자국처럼 공허하고 황량하다.

한해의 마지막 날, 때물은 달력을 거둘 때면 우리는 유난히 시간의 체온과 맥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아쉬움과 영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리라.

똑같은 분량의 시간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클 수도 있고 또 하잘 것 없이 적을 수도 있다. 시간을 부피로 느끼는 것과 평판으로 느끼는 차이다.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아니다. 그 태양이 그전과 다름없이 동녘에서 솟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의 태양을 어제의 그것으로 생각하려고 앓는다. 무엇인가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움이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어제와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움인 것이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후회와 미련을 남기면서 후시나 하는 마음으로 새고개를 또 하나 넘게 된다. 이렇게 세월이고 인생이다

선거기간 동안 유세장은 온통 돈다발로 흥청거렸다는 보도였지만 재활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들은 찬바람만 불었다고 한다. 나의 성금 한푼이 불행한 이웃에게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불우시설을 찾아보고 한해를 보내는 것도 시간을 이끌고 가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순정이 산책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92 이런 일 저런 일”

* 이제 오시렵니까!

꼭 50년 전인 1942년, 만주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신자들을 사목하기 위하여 우리 교구를 떠났던 임봉만(바오로) 신부가 연말에는 교구에 돌아오게 될 것 같다. 올해에 82세인 임 신부는 노환에 중풍까지 겹쳐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교구를 대표하는 사제들이 중국 길림성 서란에 가서 임 신부를 만났고, 이번에는 귀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사제들이 파견됐다.

지난 5월, 또다시 김희태 신부가 페루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이미 정승현·김윤섭·방의성 신부가 해외 선교사 임무를 마쳤고, 현재 페루에는 서정현 신부가 선교사로 활약중에 있다. 크게 성장한 교구의 모습이라 하겠다.

낯선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제들, 조국을 떠나와 우리 교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윤예익·지정환·배영근 신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나눴다.

* 빨래가 도깨비여?

지난 6월, 80여 사제와 2천여 신자들은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 기도회를 가졌다. “밤에 빨래줄에 널려 있는 빨래를 보고 도깨비라고 놀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강론(이병호 주교) 말씀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문규현 신부는 지난 1989년 8월15일, 임수경 양을 데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 지금은 ‘5하 10, 1314’ 번호판을 달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벌써 3년이 넘었다. 매월 둘째 월요일 저녁 7시30분에는 가톨릭센터에서 문 신부를 위한 미사가 봉헌된다. 한번쯤 마음을 함께했으면 싶다. 아직도 색깔론이 도깨비마냥 정치판을 휘젓는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치명자산 성역화 사업 재개

1912년 윤보두네 신부에 의해서 호남의 사도요 순교자인 유향검 일가의 무덤이 승암산에 마련된 이래, 우리들은 그곳 중바위를 ‘치명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순례자들이 몰려오는데, 그곳에 쏟은 우리들의 정성은 너무나 초라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그곳을 성역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형적인 조건과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 골격만 세운 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곳을 찾거나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내년 부활절을 전후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리라

한다. 내년 5월로 예정된 축성식이 아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모아야겠다.

* 말씀 배우기, 성숙의 지름길

천주교 신자들은 영세와 더불어 하느님 아는 공부를 마감한다고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성서공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그 바람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듯이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교구보 숲정이라도 금년에 들어서는 ‘5분 교리’와 ‘성서교실’을 실어 공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의구현사제단도 ‘빛드레 신앙인 학교’를 열어 1차 교육을 마친 바 있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敎區 平協)는 금년부터 조사연구부를 신설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몸짓을 시작했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다.

새해의 소망, 우리 교구장의 호소-“복음선교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배웁시다.”-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 해성학교 이전!

순교자들의 뜨거운 피가 배인 숲정이에 자리했던 해성(海星·바다의 별)학교가 삼천동에 있는 계룡산 자락으로 배움터를 옮겼다. 순교지를 떠나는 아쉬움으로 서운한 목소리들이 없지 않았다. 지당한 염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학교를 세울 때만 해도 변두리였던 숲정이터가 이제는 주택가로 바뀌었다. 거기다가 중·고 병설 체제 인지라 교육 여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저런 한이유로 학교를 옮기게 된 것이다

2만평 가까운 넓은 교지에 자리잡은 새학교는 제반 교육시설이 넉넉하기만 하다. 강당(633평), 체육관(449평), 기숙사(349평), 널찍한 운동장 등...

그러자니 학교를 옮겨서 새로 짓는데 든 비용이 자그만치 119억이 넘는다. 그래서 그런지 돈을 많이 남겼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통이 불편한 것이다.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얻어냈어도 아직은 모자라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성교육이나 진로지도에는 소홀함이 없다. 교구가 운영하는 학교가 탄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더 쏟아야 하겠다.

(정리 : 한상갑)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삼재(베네딕도)
☎ 75-0550

꽃꽂이·신부부케 전문
백제꽃시장

서은석(필립보)
양소은(테레사)
☎ 78-2002, 253-2628

축! 개소
대우지동차 무진장 영업소

직원모집 ○명 무진장 거주자

소장 유일권(프란치스코)
정수근 계내면 장계 351-4
☎ (0656)353-2357~8

잡 관

“한해를 보내며”

뜨거운 선거 열기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지만 지난 12월 9일과 22일 부모님들의 피를 말리는 고입·대입도 끝났고, 아비규환 같았던 대통령 선거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났던, 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아쉽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1992년이라는 과거 속에 묻을 수밖에 없다.

세월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폭력이라던가!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가는 세월 아쉬워하고, 조용히 한해를 뒤돌아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를 하며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가 보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한 행복, 참된 가치, 완전한 사랑은 없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일, 슬펐던 일, 부끄러웠던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희망으로 산다.

그렇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 안에서 좋았던 일, 기뻐던 일, 아름다웠던 일, 보람있었던 일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만을 희망하면서 기쁘게 살자.

그리고 새해에는 보다 알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 안에서 오는 해를 맞아들이자!

교 구 소 식

1. 이병호 주교님 미사 일정 : 1월1일(평화의 날)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1월3일 (주의 공현 대축일) 오전10시30분 전동 성당.
 2. 이병호 주교님 신년하례식 : 1월2일(토) 오전11시 가톨릭센터.
 3. 교구청 중무식 : 12월31일(목) 미사-오전11시 가톨릭센터.
 4. 평협 정기 총회 : 1월2일(토) 오후1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5. 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M.B.W.) : 93년 1월4일(월) 11시-6일(수)17시 천호 피정의 집, 주제-새본당상, 참가비-40,000원, 교통편-본당별로, 신청-본당 단위로 5명 이상, 마감-12월28일, 접수처-사무국(0652)85-0041.
 6. 중등교육자회 연수 및 정기 총회 : 93년 1월10일 오전10시-오후4시 가톨릭센터, 강사-이병호 주교, 회비-5,000원(중식 제공), 교구 내 중등교육자 전원 참석바람.
 7. 성모의 기사회 : 1월2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8.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12월31일(목)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고경훈 신부.
 9. 전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모임 : 12월29일(화) 서신동 사도회 사무실 75-3913.
- ※ 축! 영명 : 27일(성요한사도 복음사가)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중복, 이덕근, 김선태, 김희태 신부님.

- **성소모임** 성마로떨수도회 : 1월3일 오후2시 성마로 서원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1월3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종이타월 대신에 수건이나 걸레를

한 번 사용하고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종이타월 대신에 수건이나 걸레를 사용합시다. 종이타월을 만들기 위해 낭비되는 푸른 숲과 에너지는 조금만 신경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김금순 (데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편
☎ 86-2211, 254-3003

보석 감정, 디자인, 고급 시계
보석전문점 **빛 돌**
이재호(베드로)
구정삼(세실리아)
관동로 사거리 전일관광 옆
☎ 86-8750~1

각종 가스렌지 시설, 신속 배달
성심 가스
태윤선(라파엘)
황해숙(요한나)
신동 성당 앞
☎ (0653)857-5120~1

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보당**
손한성(바오로)
정정남(가타리나)
교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요심이 (1012) 김병오



은인을 찾습니다

상관 성당 수녀원 신축에 따른 각종 가전제품, 주방용품, 응접셋트, 침대, 책상, 커튼 등을 기증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전화(0652) 82-5079 사제관
82-5434 사무실

샤넬안경원

이순구(도미니코)
정병채(살비아)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 54-9525

1993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유년종합학원 252-7313
새호남유년종합학원 253-1411
효자유년종합학원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원감 박경애(안젤라)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 92년도 저물어갑니다. 교무금납부에 협조바랍니다.
1. 빈첸시오총회: 30일.
2. 사목회상임위원회: 1일.
3. 성시간: 7일, 저녁미사 후.
4. 미사시간 안내: ①송년미사-31일(밤10시) ②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새벽5시30, 저녁7시)
5. 모임: ①올트레아(3일) ②반회장(7일, 전10시30분)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상인

1.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 27일(오늘) 공식미사 후.
2. 송년미사: 31일(목) 저녁8시미사.
3. 1월1일(금)은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미사는 주일과 같음(의무축일)
4. 회합: ①제대회-31일 오전10시.
②사목회-1월3일 저녁미사 후.
③대건회-1월3일 공식미사 후.
금주전례: 최옥남, 독서-안운정씨 부부, 봉헌-강영전씨 가족.
송년미사-정승훈, 독서-이갑진.
차주전례: 오교성, 독서-이상인씨 부부, 봉헌-황길평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동욱

- ※ 오늘은 성가정 대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읍시다.
1. 매월 첫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 '92교무금 완납하시고 '93교무금 신입합니다. 2. 성모회: 공식미사 후. 3. 교리교사를 위한 헌금: 오늘 모든 미사 중. 4. 성마리아 대축일 및 평화의 날: 1월1일은 의무축일입니다. 미사는 공식미사 한대만 있습니다. 5. 사목회: 2일(토) 저녁미사 후. 6.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성서읽기: 시편51편-60편. 8. 금주침소: 바다의 별Pr. 9. 금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양대환 ②김미남, 봉헌-성가정회, 성마리아 대축일: 해설-김영신, 독서①유순천 ②이훈봉, 봉헌-황상호, 김광열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정광철 ②송경자, 봉헌-김종석, 장만수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1. 회의: ①반장회-다음주일(1월3일)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1월3일) 오후2시.
2. 알림: ①1월1일(평화의 날) 대축일 미사-1월1일 오전10시30분(의무 축일이므로 모든 신자 미사 참여해야함)
②본당 서석기(메트로) 주임신부님 사제서품 30주년인 12월27일(오늘)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③93년도 교무금 미신입자 신입바라며 교무금 미납되신분 완납바람.
3. 감사: 성탄준비에 협조해주신 분들과 성탄절 행사에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820,050원 □ 교무금: 2,514,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밝은 새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꽃피읍시다.
1. 오늘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2. 송년미사: 12월 31일-10시30분 저녁미사.
3. 1월1일 대축일 미사: 10시30분 공식미사 만, 청소봉사: 4구역.
□ 지난주 봉헌금: 667,600원 □ 교무금: 3,67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영태

- ※ 성탄 행사에 수고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금주: ①성가정회 정기총회(공식미사 후) ②성마리아 꼬미시움(후2시) ③사목회 정기총회(저녁미사 후 당당)-입원 및 위원, 단계장, 구역반장 전원 참석바람.
2. 송년미사 안내: 31일(오후11시30분)
3.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미사: 신자로서의 미사 의무를 다하십시오.
4. 배에따회: 1월2일 전10시.
5. 성회회 임원 개선: 회장-박순기(요한) 형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임회장-최병래(안토니오) 형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99,3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갈삼근

- ※ 성가정 축일: 가정마다 주의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 축! 세례: 본당-63명, 세초자-33명,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1. 송년의 밤: 31일 밤10시미사.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정리해봅시다. 2. 평화의 날(1월1일)미사안내: 9시, 10시30분, 7시30분. 3. 꾸리아 월례회의: 1월3일 후2시30분.
4. 유아세례: 2일(토) 후3시 사무실에 서류를 접수바랍니다.
5. 교리경시대회: 오늘 후2시 가톨릭센터 3층에서.
6. 성모회 송년회: 30일 12시 교리실에서 새회원을 환영함.
7. 올트레아 송년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교리실에서 나눔잔치.
8. 가정미사: 29일 후8시, 이요안나 주광205동 605호.
9. 중·고등부 첫영성체 교리반: 1일까지 수녀원에 접수바람.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길

- ※ 본당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1. 영명축하식: 미사 후, 전신사 잔치-축하식 후에 있습니다.
2. 송년미사: 31일(목) 오후7시30분.
3. 평화의 날 미사: 1993년 1월1일(금) 오전10시30분.
4.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8시.
5. 교무금 수입을 부탁드립니다.
6. 각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주시시오.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유경희, 김홍식
차주전례: 정길, 독서·봉헌: 형공임, 윤장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석희
사목회장 이동섭

- ※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입니다.(새로오신 아기에 수와 함께 효자가족의 가정마다 새로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빕니다)
모임안내 -----
1. 성서경시대회: 29일(오늘) 오후2시(전동 교육관 11시30분까지 입장) 2. 꾸리아-3일(수) 오전10시. * 관광공사 못보신분-매미사시간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 93년도 교무금신입-오늘 매미사중에 신입서 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전신화정리를 위해 교적번호(교무금카드번호)와 전화, 직업을 꼭 기록합니다) ※ 참고하십시오-교인아파트, 궁전아파트, 대우 오션아파트 부근 교우님들은 교구청에서 구역경계가 결정될때까지는 동요되지 말고 열심히 나오십시오.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익도

1. 모임안내: ①반석회-공식미사 후 ②요셉회-공식미사 후.
2. 송년미사: 31(목) 8시.
3. 사목회임원 및 성전 건축위원, 각 단체장 만년회: 31(목)송년미사 후.
4. 신집 미사시간: 첫미사 없이 주일과 같음.
차주모임-꾸리아.
금주전례: 해설-임정수, 독서-①김현균 ②김선자
봉헌-안내-김경철 부부, 이태영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낙완, 독서-①유인성 ②김연수
봉헌-안내-최규화 부부, 김상권 부부.